

# 영화 <GO>의 원작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의식과 서사

심지원\*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3. 탈식민적 선택과 앞의 문제
4. 인식주체로의 성장과 초국가적 주체의 추구
5. 결론

## 국문초록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GO>는 기존 재일한국인 문학에서 반복되었던 민족 차별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독창적인 서사와 탈식민적 의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인공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 초국가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글쓰기 방식과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식민적 사고방식과 개인의 정체성 형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주인공이 '연결고리 끊기(de-linking)'를 통해 기존 민족 및 국가적 억압에서 해방되어 인식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주인공이 국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편견의 원인과 역사적 맥락을 공부하고, 다양한 마이너리티들과 그 지식을 공유하며 저항 담론을 만들어가

---

\* 단국대학교 강사

는 지적 궤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양한 마이너리티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며,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소설은 대중영화화된 <GO>와 달리, “선택”과 자신의 역사와 사회, 편견에 대한 “앓”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선택과 앓은 탈식민주의에서 논의하는 탈식민적 선택과 지식과도 맞닿아 있다.

본 연구는 <GO>가 단순히 재일한국인 문학의 범주를 넘어, 탈식민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사 방식을 제시하는 작품임을 밝히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이 작품은 기존 재일한국인 문학에서 다루었던 민족적 서사를 넘어, 일본 사회에서 대중성을 획득한 사례이다.

(주제어: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탈식민성(Decoloniality), 탈식민적 선택, 연결고리 끊기(de-linking), 가네시로 가즈키, <GO>)

## 1. 서론

이른바 ‘대중문학’으로 분류되는 소설에 주어지는 문학상인 나오키(直木)상을 수상한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1968-)의 <GO>는 이제까지의 재일한국인 문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sup>1)</sup> 동시대의 재일한국인 청년은 물론, 젊은 일본인들에게도 재미있게 읽히는 문학으로 수용되어 영화로 제작돼 흥행에도 성공했다.<sup>2)</sup> 차별에 대한 저항과 민족적

1)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인용할 때 한국 번역본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는 원작과 비교해서 필자가 번역문을 수정한다. 가네시로 가즈키, 『GO』, 김난주 역, 북폴리오, 2006를 사용했다.

2) 최수웅은 영화 <GO>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여러 영화제에서 수용된 양상을 분석한다.

각성을 주제로 했던 이전의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넘어,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고 영화산업과 끊임없이 교류하여 성공하고 있는 가네시로 가즈키는 일본문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작가이다.

디아스포라 문학에서는 늘 자아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GO>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 근대성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탈식민적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타 작품들과 결을 달리한다. 이 작품은 재일한국인 문학에서 자주 반복되어온 민족차별과 문화적 차이라는 소재를 다루며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사이의 갈등과 재일조선인 사회 내부의 문제점 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와 국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건드리고 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중성을 획득한 묘사방식과 감성을 들 수 있다. <GO>는 때로는 진지하지만 주로 가볍고 익살스럽게, 때로는 신랄하지만 위트와 유머를 잃지 않으며 대중적인 서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지만 과장이 섞인 익살도 담고 있는 것은 엄숙하고 폭력적으로 그려지는 일본의 차별, 민족학교의 이데올로기적 교육과 대비되며 오히려 억압적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주인공은 적대적인 일본사회에 대해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전체 시스템 속

영화는 2002년 일본아카데미영화상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조명상, 편집상, 각본상 등의 8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베를린영화제의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호치영화상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을 수상했고 팜스링스영화제에서는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 한국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한국에 소개되었던 일본 영화들 중에서 최다 예매기록을 갱신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일반 관객보다 마니아층의 지지를 받았고 오랜시간에 걸쳐 꾸준히 감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최수용, 「재일한민족문학의 이야기 가치와 문화콘텐츠적 활용양상 연구-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GO』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8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295-296쪽.

3)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제4장 “모방과 인간: 식민지 담론의 양가성” 참조.

에서 이해하고 양쪽 모두를 비판한다.

본고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식민지배 역사로 인한 억압적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탈식민적 사고방식과 대중성을 획득한 텍스트의 서술(narrating)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에는 탈식민주의에서 논의하는 “연결 고리 끊기(delinking)”가 잘 드러나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이 논의하는 조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살피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물들을 묘사하며 작품이 전형적인 재일조선인의 글쓰기의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살핀다. 또한 주인공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그 편견의 이유와 역사적 맥락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마이너리티들과 그 삶을 공유하며 저항담론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의 지적 귀적을 함께 살피며 주인공이 국가에 구속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재외한인 문학 작품과 가네시로 가즈키에 관한 연구를 살피며 현재도 존재하는 식민적 구조와 그에 수반하는 근대성의 문제를 비판하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작품들을 살필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기존의 지식구조, 사고방식, 문화의 구조, 권력 구조에 내재한 식민성을 파악하고 해체해야 한다며 인식론의 전환을 요구한다. 가네시로 가즈키의 <GO>는 탈식민적 의식과 탈냉전적 사고를 진행하며 결국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국가적 의식을 드러내는데, 그 서사방식에서 이 작품의 독특함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식민지배 역사로 인한 억압적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탈식민적 사고방식과 텍스트의 서술방식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난다. 나아가, 본고는 이 작품이 논의하는 조선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살피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물들을 묘사하며 작품이

전형적인 재일조선인의 글쓰기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을 살핀다. 본 논문에서 다룬 소설에서는 대중영화화된 <GO>와는 다르게 “선택”과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 편견에 대한 “읽”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하는 선택과 읽은 탈식민주의에서 논의하는 탈식민적 선택과 탈식민적 지식과 상통한다.

## 2. 선행연구 및 방법론

### 2-1. 선행연구

김응교는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이민시기와 태생시기에 따라 재일 한인들을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자이니치 작가들로 분류하여 각 특징을 정리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정주한 김사랑, 김석범, 허남기, 강순, 김시중, 이회성 등 제1세대 작가는 식민지체험을 담아낸 민족의식 또는 정체성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파악한다. 반면에 일본어로 친일 작품을 쓴 작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양석일, 김학영, 이양지, 김학렬 등의 제2세대 작가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심한 차별을 받으며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자이니치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 때문에 민족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의 특성을 가지고 정체성의 문제를 중시한다고 본다. 민족성의 확립에 따른 갈등과 일본 사회에 대한 치열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제3세대 작가들은 일본사회에 동화된 정도도 더 크고 민족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파악한다. 이들 중 하나로 가네시로 가즈키를 설명한다.

가네시로 가즈키는 스스로 ‘코리언재패니즈’(コリアン・ジャパニズ)라며, 『레볼루션 No.3』, 〈GO〉 등에서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인물을 그려냈다. 어둡고 칙칙했던 분위기로 표상되었던 이전의 재일조선인 문학과 달리 가네시로의 소설은 통쾌하고 위트있는 문체와 밝은 분위기를 가진다. 2000년대에 인정받는 자이니치 한국인 소설가로 유미리(柳美里), 양석일, 현월(본명 현봉호), 가네시로 가즈키를 높이 평가한다. 차별에 대한 저항과 민족적 각성을 주제로 했던 이전의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을 넘어,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고 영화산업과 끊임없이 교류하여 성공하고 있는 이들은 일본문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영미는 가네시로 가즈키의 문학이 민족과 조국이라는 원죄의식에서 탈피하여 ‘주체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한다.<sup>4)</sup> 재일한인문학의 3세대 소설이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다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1, 2세대 작가들이 민족의식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재일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저항이라는 거대담론을 중심 모티프로 삼고 있다면, 3세대 작가들은 선형적, 감정적, 운명적 민족의식을 탈피하고 일본사회 내에서 새롭게 ‘재일론’의 모색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며 가네시로 가즈키를 논의한다. 문재원은 현재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 담당층은 현재 거주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나갈지 고민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3세대라고 판단한다.<sup>5)</sup>

4) 이영미,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에 나타난 "국적(國籍)의 역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37호, 한국현대소설연구회, 2008, 325-347쪽. 이영미는 재일한인문학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 경향을 설명한다. 유숙자, 장사선, 김환기 등학자들은 3세대의 작가로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정윤희, 김중명, 김창생, 원수일 등을 분류한다. 이영미, 위의 논문, 328-329쪽에서 재인용. 재일한인문학의 역사와 세대별 특징, 언어적 다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응교,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133-136쪽. 참고.

5) 문재원,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의 경계와 해체- 현월과 가네시로 가즈키의 작

지금 이곳의 생활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서사적 모색과 함께 동일성을 지향하던 민족서사에서 다양한 형식적 실험들이 구상된다는 것이다. 문재원은 재일코리안 문학을 논하며 한국문학이라는 국가 중심의 문학사 기술 내에서 대상으로 재일코리안 문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일코리안 문학의 위치성을 토대로 한국문학사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의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문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한국’문학적 소재나 주제의 확장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공간 안에서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매개된 재일코리안 문학의 독특한 형식과 역사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필 소설 <GO>는 많은 평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최수용은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GO>의 이야기가치를 보편적인 이야기구조의 구현,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의 교류, 일상을 통해 환기되는 주제의식이라고 분석하며 이야기가가치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만화 작품에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영화 <GO>는 속도감있는 편집과 캐릭터의 제시방법 등 표현기법에서 영상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했고 영화에 청춘영화적인 속성이 부여되어 보편적인 이야기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만화 <GO>에는 학원만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대결구조를 강화하며 주인공의 사변은 극히 단순화되고, 교육에 대한 비판이 재일한민족문학의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게 되어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만화가 되었음을 분석한다.<sup>6)</sup> 이영미는 3세대 작가들은 선형적, 감정적, 운명적 민족의식을 탈피하고 일본사회 내에서 새롭게 ‘재일론’의 모색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GO>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민족과 조국이라는 원죄의식에서 탈피하여 ‘주체화’에 성공했다고 해석한다. 이영미는 재일한인문학의

품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5-21쪽.

6) 최수용, 앞의 논문, 295-301쪽.

3세대 소설이 이전 세대와 달리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강하게 다루고 있다고 부연한다.<sup>7)</sup> 1, 2세대 작가들이 민족의식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재일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저항이라는 거대 담론을 중심 모티프로 삼고 있다면, 여기에 ‘국적’ 문제가 포진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시각’의 차이라며 타자의식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저변에 남아 유랑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29)</sup> ‘유랑하는 민족의식’이라는 의미는 작가별, 등장인물의 환경적 설정 별로 소설 형상화 내부에서 개인간 재현양식의 편차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네시로 가즈키는 일본 사회의 내적 모순들을 고발하면서 국가와 국적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환기하고자 했다고 하며 작품<GO>에 나타난 국적의 의미를 논의한다. 김광수, 박정이는 세계주의사상(cosmopolitanism)을 통해 민족차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것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스키하라의 ‘DNA논리’에 따르면 결국 전 세계는 하나의 DNA에서 출발한 것이 되고 인종이니 민족이니 하는 구분은 의미가 없기에 이 논리를 기반으로 스키하라는 세계주의 사상을 통해 민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문재원은 일본이라는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었던 마이너리티인 재일한인들에게 연대의식을 일깨워준 면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해석한다.<sup>9)</sup>

7) 이영미, 위의 논문, 325-347쪽. 이영미는 재일한인문학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 경향을 설명한다. 유숙자, 장사선, 김환기 등학자들은 3세대의 작가로 유미리, 현월, 가네시로 가즈키, 정윤희, 김중명, 김창생, 원수일 등을 분류한다. 이영미, 위의 논문, 328-329쪽에서 재인용. 재일한인문학의 역사와 세대별 특징, 언어적 다양성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응교, 위의 논문, 133-135쪽 참고.

8) 김광수·박정이,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의 방향과 그 주체」, 『한일어문논집』 제14집, 한일어문학회, 2010, 131-144쪽.

9) 문재원, 앞의 논문, 5-21쪽.

## 2-2. 탈식민주의

탈식민적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식민주의는 종결되었더라도 문화의 구조, 권력 구조에 내재한 식민성을 파악하고 해체하려는 의식이다. 미놀로에 따르면 그것은 “탈식민성은 식민성, 혹은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와 맞서면서 그것과의 고리를 끊는 탈식민적 선택들”을 의미한다.<sup>10)</sup>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들은 프란츠 파농이 주장한 ‘새로운 인간성’으로 이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고유한 개념이 중심이 된 사회조직들로 이어져야 한다고 미놀로는 주장한다.<sup>11)</sup> 새로운 공동체적인 사회는 기존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보다는 다수의 세계들이 공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탈식민적 선택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식민적 권력 매트릭스에 대해 “연결 끊기(de-linking)”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식민적

---

10) 미놀로, 월터 D.,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전 지구적 미래들과 탈식민적 선택들』, 김영주 외 2명 역, 현암사, 2018.; Mignolo, Walter D., “Epistemic disobedience and the decolonial option: A manifesto”, *Transmodernity* 1.2, 2011, pp.3-23.; Mignolo, Walter. “Geopolitics of sensing and knowing: On(de) coloniality, border thinking, and epistemic disobedience”, *Confero: Essays on Education, Philosophy and Politics* 1.1, 2013, pp.129-150.; Gearhart, Suzanne, and David Palumbo-Liu, *Minor Transnation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230-233.

11) Decoloniality 개념은 Postcolonialism 이론과 상통하지만, 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식민지적 사고를 비판하고, 지식 체계, 권력 구조, 경제적 불평등 등을 포함하여 식민지적 유산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사고 방식을 제시하려 하고, 지식 생산, 교육, 정치적 실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기존의 지식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분석의 틀로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권력 매트릭스 속에서 형성된 인식, 사유의 방식에 대해서 ‘인식적 불복종’과 ‘인식적 단절’을 하는 것이며 인식적으로 불복종하는 것은 탈식민성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탈식민성의 목표는 이러한 단절을 통해 새롭게 ‘다시-존재하기’이다. “탈식민적 선택들 — 삶의 비전, 탈식민적 주체들, 탈식민적 지식들 및 탈식민적 제도들을 요구하는 사회의 비전”을 통해 새롭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 근대의 존재 양식,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모든 근대의 존재 양식의 성격인 ‘개인’을 주체로 해서 온전히 이뤄질 수 없기에 공동체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GO〉의 주인공이 경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내러티브의 형태와 언어로 재현되는가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고는 우선 디아스포라와 탈식민주의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작품에서 민족,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보편적 이상, 주인공들의 비전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우정, 사랑, 예술, 역사적 의식 등이라는 점도 살필 것이다. 또한 주인공이 자신의 어떻게 소외의식을 극복하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며 사회에 어떻게 투입하고자 하는지 살필 것이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성/근대성이라는 유럽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것은 〈GO〉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우선 이성/근대성과 식민성 사이에 있는 모든 연계,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은 모든 권력과의 연계를 끊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초국가적 주체의 추구: 가네시로 가즈키의 <GO>

#### 3-1. 국적, 민족주의의 문제와 연결고리 끊기(de-linking)

소설 <GO>는 작품 서두에서부터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밝히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설명한다.<sup>12)</sup>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담담하고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재일조선인인 아버지의 국적에 얽힌 이야기를 하며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조총련과 민단의 복잡한 관계와 간략한 역사를 설명한다. 이 소설은 자신의 연애를 다룬 것이며 그 연애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모든 '주의'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는 자신과 가족의 국적 이야기를 한참 한 이후 겨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연애가 일본인인 여자친구와 국적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역시 국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인공이 자라나는 환경, 교육 등 삶의 모든 면에서 국적,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주인공에게 영향을 끼친다. 스스로는 국적에 연연하지 않지만, 자신의 연애와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적의 문제였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국적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이다. 주인공의 한국식 본명은 소개되지 않고 주인공은 통명인 일본이름 스키하라로 불린다. 민족학교에서는 별명인 크러퍼로 불렸다고만 설명된다. 그가 자신의 한국이름을 밝히는 것은 작품 후반부에 여자친구에게 "이"가 자신의 본래 성이라고 말할 때이다. 여자친구 또한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일본

---

12) 소설 <GO>는 2001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제작하여 유카사다 이사오 감독이 영화로 제작하였고 2002년에는 콘도 요시후미 그림의 만화로 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원저자의 창작물인 소설만을 다루기로 한다.

적이어서 성인 “사쿠라이”로만 소개한다. 사쿠라이 츠바키(椿)라는 이름이 너무 일본적인 것 같아서 가르쳐주기가 싫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작품의 인용구(epigraph)도 이름에 대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대사 “이름이란 뭘지? 장미라 부르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그 향기는 변함이 없는 것을.”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름과 그 이름에 부여된 국적의 의미를 드러낸다.<sup>13)</sup>

1장에서는 주인공이 재일조선인에서 재일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고 민족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2장에서는 일본의 사립 남자 고등학교에서 '스기하라'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가 민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학생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상황이 묘사된다. 이 장에서는 가토라는 친구가 등장하며, 가토는 주인공이 싸웠던 첫 번째 도전자이자 유일한 친구다. 가토의 생일파티에서 주인공은 사쿠라이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된다. 3장에서는 친구 정일과의 만남이 그려지며, 그가 민족학교 시절부터 민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온 과정이 설명된다. 주인공과 정일은 다양한 책을 통해 민족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가 운영하는 불고기집에서 여러 마이너리티와의 대화를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이야기한다. 4장에서는 주인공과 사쿠라이의 데이트가 이어지며, 사쿠라이의 집에서 저녁 식

13) 김광수, 박정이는 소설 <GO>의 서술자가 '자'와의 친분관계를 '성'과 '이름'으로 구분지어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인공 스기하라의 민족학교 동창생인 원수와 정일은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호명되고, 스기하라의 일본고등학교 친구 가토와 재일조선인 미야모토는 성으로만 호명된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성과 이름 모두 등장하는 인물은 사쿠라이 쓰바키이다. 윤상인은 “이름을 둘러싼 구분과 차별의 문제는 단지 재일조선인 사이의 ‘피해-가해’의 정형적인 인식틀에 한정되지 않는, 인간의 실존 조건이라는 주제까지로 승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즉, 작품의 주제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도 연관성이 깊다는 말이다. 윤상인, 「재일한국인 문학과 「이름」의 정치학」, 『일어일문학연구』 제59권 2호, 일어일문학회, 2006, 139-154쪽.

사를 하면서 그녀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의 국적을 밝히지 못한다. 5장에서는 정일이 민족학교 여학생을 돕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쿠라이는 슬픔에 잠긴 주인공을 위로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그날 밤 재일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게 된다. 이에 충격을 받은 사쿠라이는 주인공을 거부하고, 주인공은 그녀와 이별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교환하며 헤어지는데, 주인공은 큰 상실감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삭이며 집으로 돌아가다 경찰과의 마주침으로 인해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6장에서는 같은 반 친구 미야모토가 주인공을 재일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활동하는 모임에 초대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국가나 민족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결심을 다진다. 한편, 주인공의 아버지는 또다시 일본 공권력에 의해 사업을 잃고, 북조선에 살던 동생의 죽음 소식까지 듣게 되어 술에 취해 아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버지를 비난하며 다투게 된다. 아버지는 점차 일본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재일한국인이나 일본인이라는 구분이 사라질 것이라며,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7장에서는 사쿠라이가 주인공을 찾아와 2년 전부터 주인공의 눈빛에 반했다는 고백을 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주인공은 "나는 재일도 한국인도 몽골로이드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쿠라이 역시 이제 주인공의 국적이나 민족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둘은 다시 연인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스기하라의 연애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적 문제였고, 주인공은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국적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소설 서두에서 "이 소설은 나의 연애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연애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주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언급된다. 비록 이 작품이 이념을 초월한

연애 이야기라고 하지만, 첫 장에서부터 국적 문제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결국 주인공의 연애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그의 국적과 민족성이었음을 드러낸다.

연애나 우정 등 주인공의 모든 삶의 일상에 재일한인들의 민족과 국적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과 차별도 다루지만 국가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화자는 일본의 차별적 태도와 북조선을 따르는 민족학교의 모습도 희화화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에 비판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으로 민족학교를 다니다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일본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재일한국인인 스키하라의 연애 이야기에 연애의 대상 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선학교의 친구인 정일, 그리고 일본인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친구인 가토이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주인공과 아버지의 조국인 한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계다. 아버지는 어릴 적엔 일본사람이었고 일본이 패하고 전쟁이 끝나자 재일 조선인이 되었고, 주인공이 중학생일 때 세 번째 국적인 재일한국인이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의 패망 후 자국의 영토에 거주하던 피식민지인들에게 국민의 권한을 주지 않았기에 재일 조선인들의 삶은 어려웠던 배경이 그려진다. 핑계는 하와이에 놀러가기 위해 미국과 수교가 없던 북조선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한 것이지만, 재일조선인의 단체인 조총련의 적극적인 활동요원이었던 주인공의 아버지는 하와이에 간다는 핑계로 재일한국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이것은 소설 말미에 조선인 내부적으로도 가진 이데올로기적 족쇄를 주인공에게서 풀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주인공에게 이해가 된다.(243) 아버지는 한국으로 국적을 바꿔서 조총련을 배신한 셈이 되었고, 1950년대 말에 시작된

‘귀국운동’에 동참해 일본에서 북조선으로 건너간 동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 화자이자 주인공인 스키하라는 자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따분할지라도 국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4)</sup> 화자는 “시덥잖다”거나 “별볼일 없는” 이야기라고 부연하며 국적과 아버지 어머니의 배경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스키하라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난다.

부모님이 조선인에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꿀 당시 반항적인 중2였던 주인공은 부모님을 따라 하와이에는 가지 않았지만 “저 넓은 세계를” 보고 선택은 네가 하라고 선택권을 준 아버지의 제안에 넘어가 국적을 바꾸게 된다.<sup>15)</sup> 스키하라도 재일조선인에서 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며 그가 갇혀있던 좁은 사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넓은 세계’란 말에 피가 들끓고 만 것이다.(...)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고 싶다 다른 나라로.....(1) 줄곧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에 갇혀 있었던 내게 아버지의 그 말은 처음으로 주어진 선택권이었다. 북조선이나 한국이나, 끔찍하도록 좁은 범위의 선택이기는 했지만 내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나는 비로소 번듯하게 인간 대접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18)

민족학교의 답답한 곳에서 선택권이 없던 주인공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그의 앞에 “무수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14)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중략: 국적을 바꾸는 문제 설명) 가능하면 유머도 섞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9) 이쯤에서 다시 시덥잖은 설명을 해야겠다. 그것도 과연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지.....(10) 이쯤에서 다시 또 별볼일 없는 설명을 해야겠다. 설명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 얘기도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다.”(12)

15) 작품에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양가적으로, 그리고 코믹하게 그려진다.

것이였다.(19) 그는 민족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가는 전형적인 길을 거부하고, 민족학교를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가 직접 언급하듯이 매우 혹독한 결정이였다.

### 3-2. 스테레오타입의 생성과정과 해체

이 소설은 단선적이고 연대기적인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연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 학교, 그리고 어릴 적 일본 사회에서 겪었던 차별의 기억 등이 주인공의 의식과 사건에 대한 기억을 따라 분절적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일본 이름과 조선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중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1장에서 드러나는 서술 방식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서술할 때,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유머를 섞어 아버지를 희화화하며 이야기체로 전개된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의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과장되고 유머있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은 이 작품의 곳곳에 등장한다. 2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일본 고등학교에서 싸움 대장으로 지내던 주인공이 친구 가토의 파티에서 사쿠라이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된다. 장 초반에는 주인공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 찾아온 일본 학생과 그 싸움에 돈을 거는 반 친구들의 모습이 과장되고 코믹하게 그려진다. 스키하라는 본의 아니게 일본식 이름인 통명을 사용하고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이어가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그의 한국인 정체성이 드러나자, 즉시 싸움을 걸어오는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주인공은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주인공이 일본 학교에서 통명

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학교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석부에 적힌 그가 다닌 '조선'학교의 이름 때문에 결국 그의 조선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스기하라는 일본인들이 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인들은 조선학교를 폭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의 전형화된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스기하라는 타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식하며,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인식의 기제임을 깨닫는다.

[난폭한 놈과 착한 놈] 양자의 비율은 일본학교 역시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조선학교의 난폭한 놈들에게는 '차별'이라는 속이 꽉 찬 연어가 주어진다. 그 놈은 연어를 연신 먹어대는 탓에 몸이 점점 커지면서 덩달아 점점 난폭해진다. 그리하여 그 놈의 끔찍한 이미지가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조선인'의 표상으로 정착하고 만다.(28)

화자는 표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화되며 유통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정형화된 지식이 어떻게 인종차별적 정당화를 만들어내고 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 형태의 정치적 통제가 합리화되는지 인식한다. 호미 바바는 식민지배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대는 것이 피지배자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스테레오타입 담론이라고 논의한다. 스테레오타입은 고정된 형태로 재현하여 '인종'이라는 기표가 인종주의적인 고정적 스테레오타입 이외의 것으로 유통되고 명확히 주체를 재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지식은 식민지배자의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담론의 정당화를 약화시킨다. 이 소설 자체가 그러한 앎을 통해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을 깨고 다양한 인간들을 묘사하며 지배적 담론에 균

---

16) 호미 바바, 위의 책, 187-194쪽.

열을 가하며 식민지배자의 담론을 침범한다.

이 장에서는 스키하라와 사쿠라이의 만남이 묘사된다. 스키하라에게 처음으로 도전한 일본인이자이자 유명 조직폭력단의 간부를 아버지로 둔 가토는 스키하라와 친한 유일한 학교친구이다. 스키하라는 가토의 생일파티에 초대되고 거기에 스키하라를 찾아온 사쿠라이에게 금방 반하게 된다. 사쿠라이는 다음 일요일에 만나고 싶어하지만 그날은 민족학교의 절친한 친구인 정일을 만나기로 했기에 사쿠라이의 제안을 거절한다. 사쿠라이와 헤어질 때의 대화로 시작된 3장은 결국 그 다음 일요일에 정일을 만나서 불고기집에 가서 엄마와 엄마 친구 나오미씨, 종업원들과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량이 긴 장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정일과의 인연과 민족학교에 대해 소개한다. 스키하라는 자신이 다닌 민족학교를 설명하며 그 학교는 김일성을 종교의 교주같이 모시고 있음을 비판한다. 스키하라는 일본사회 내의 차별의 배경이 되는 국가 이데올로기도 비판하지만 재일조선인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김일성이 이상화된 현실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하기도 한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은 소설 〈GO〉에 여러 번 등장하며 주인공이 일본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하고, 경찰의 인간적 면모를 통해 개개인과 공권력의 문제를 분리시켜 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김일성의 전설들이 매력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설이 훨씬 더 굉장하다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이 2학년 때 겪었던 일에 비해 김일성이 일본 관헌을 공격한 것이 그다지 더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재일한인이 처한 상황이 식민지 시대의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주인공

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북조선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는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일본 관헌을 공격했던 이야기를 배우며 자신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일화를 소개한다. 주인공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길에 차도로 내려가 걷고 있는 친구 몇 명을 본 미니경찰차를 탄 여자경찰이 메가폰을 들고 주의를 주었다.

**“너희들 같은 사회의 쓰레기는 길가로 걸어야지!”**

우리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나고는 생각지 않았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앞에 툭하면 우익의 가두 선전차가 나타나 훨씬 더 심한 말을 쏟아붓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역시 화는 났다.(61, 필자 강조)

경찰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사회적 쓰레기”라고 하는 행위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기성세대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서 재일조선인은 차별받고 부당하게 호명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친구들과 미니 경찰차를 물풍선 폭탄으로 공격하지만 사전에 도주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물감을 푼 물풍선 공격으로 작은 차 사고가 나서 여자 경찰 하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나약한 자를 괴롭히기는 싫어서” 그날로 습격을 중지했다고 설명한다.<sup>17)</sup> 약한 자를 돕기는커녕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쓰레기”라고 부르는

---

17) 영화 <GO>에서는 ‘폭력적인 조선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여 고등학생인 주인공과 친구들이 벽돌로 자동차의 유리를 깨며 폭력적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것으로 재현된다. 또한, 일본의 혼을 논하며 일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일과 주인공이 오히려 일본의 만담을 즐기며 만담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리는 등 소설에 드러난 저항적인 모습들을 일본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게 치환해 놓았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을 순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자본의 영향력과 문화를 반영하는 영화의 시각적 재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경찰로 묘사되는데 주인공 일행은 흠쩍이며 악한 모습을 보이는 여자 경찰에게 더 이상 복수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준다.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은 아버지의 파칭코의 경품교환소를 두 개나 빼앗는 국가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린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기도 하며, 작품 말미에는 외국인들을 검문하는 역할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작품에 등장할 때 전형적인 공권력의 상징으로 고정된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으며 참신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초등학교 기간 내내 주인공은 공산주의 특유의 총괄시간, 자아비판이 너무나 싫어서 학교에 자주 결석했고 언젠가는 김일성을 위해 싸우게 될 것이라고 세뇌받는 학교 교육을 너무나 답답해하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도 같은 민족학교의 교육과 그 시스템을 비판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양면성도 잘 드러난다.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 안에 있으면 “무언가 확실한 것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 친구들과는 끈끈한 우정 이상이 있기에 중학교 때엔 학교에 열심히 다녔다고 설명한다.(72) 스키하라는 그것이 자신을 답답하게 움아매고 있다 해도 그 밖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강하게 작용하는 학교를 벗어나게끔 스키하라에게 용기를 준 것은 아버지의 하와이행과 수세미 선배의 실종이었다. 민족고에 다니던 수세미 선배는 재일외국인으로서 걸림돌에 걸려서 하고 싶은 축구선수를 할 수 없었다. 당시의 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 지문을 찍으려고 갔다가 개인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체감하고 “권력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18)</sup> 지문을 찍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

18)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새로운 민족관을 찾아서』, 이규수·임성모 역, 돌베개, 2006. 재일조선인 학자 서경식은 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재일조

는 현실에 짜증이 나서 외국인 등록과 직원들을 패주려고 했지만 다리를 질질 끄는 아저씨와 얼굴에 커다란 멍이 있는 젊은 언니가 너무나 친절하게, 또 수고하셨다고 여러 번 말하며 친절하게 해주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게 그린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에 저항하기가 더욱 어려웠음을 수세미 선배는 이야기한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억압적인 것과 그 안의 구성원을 구분시켜 바라보는 시각은 소설 곳곳에 나타난다.

민족학교라는 배타적 민족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아버지와 선배의 조언도 한몫을 한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하와이를 운운한다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그 선배는 주인공에게 “가(行け)”라고 이야기한다. 아버지도 재일한국인으로 국적을 바꾸고 하와이를 가자고 하고 수세미 선배도 민족학교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을 한 이후 주인공은 일본 고등학교로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재일 조선인 학교의 민족주의 또한 얼마나 배타적이고 그들의 국가관이나 공동체 개념이 얼마나 편협한지 보여준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떠나 일본학교로 간다는 것은 비밀에 부치고 준비하라는 통고를 받고 스기하라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입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하필 ‘김일성 원수의 혁명역사’ 시간에 즐자 선생은 따귀를 때리며 ‘자아비판’을 하라고 종용한다. 비판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자 또 얻어맞고 선생은 스기하라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무렵 이미 스

---

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었다고 논의한다. 외국인등록 지문날인제도는 재일 조선인들의 투쟁을 통해 1992년 영주자에 한해 폐지된다. 그 대신 서명과 가족사항의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외국인 등록증은 상시 휴대할 것이 의무화되어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재일조선인을 치안방해의 대상으로 보고 그 동향을 항상 감시하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27쪽.

기하라가 국적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이지메가 심해진 것이다. 이미 일본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경멸적 언어를 들은 주인공에게 민족학교의 선생도 심한 말을 한다.

“넌 **민족의 반역자!**”라면서 명치를 걷어찼다.

“너 같은 놈은 뭘 해도 안 돼.”라면서 머리를 툭툭 쳤다.

“넌 **매국노야!**”라면서 또 따귀를 때렸다.(80, 필자 강조)

주인공은 자신이 매국노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자신이 어째서 매국노가 아닌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때 스기하라 대신 그의 기분을 표현해준 친구가 바로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가 된 정일이었다. 그는 교실 뒤쪽에서 악을 쓰며 “우리들은 나라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81) 그리고 주인공을 위해 반항적인 발언을 한 모범생 정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에게 얻어맞았다.

정일은 국가와 민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일본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민족학교의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범생이다.(88-89) 자이니치는 온전하게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던 것이다. 이것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과 같은 정적이고 자기동일적인 민족, 민족공동체가 원하는 이상향에 대한 상상으로 묶인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로서의 민족교육이 사실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한 말이기도 하다. 정일과 스기하라는 획일적 국가 담론 속에 통제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민족성에 대한 관념을 이해해가려고 한다. 선생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민족서사가 아닌, 자신들이 의미작용 과정의 ‘주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일이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혼종적 존재이

다. 재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일본학교에서 이지매를 많이 당하다가 재일 “조선인” 중심인 민족학교로 오게 된 한국 국적의 재일한국인이었다. 그는 혼종적 정체성으로 인해 어떤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문화적, 정치적 주변부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을 잘 지도하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민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스테레오타입의 경우처럼 바바는 혼종성이 식민지배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전통적인 분석은 식민지배자 피지배자의 지식의 언어를 단순히 뒤집기만 하는 반동적 성격이 주되기 때문이다. 그는 식민지배 담론과 탈식민 ‘제3의 공간’을 연결하는 “제3의 공간(The Third Space)”이라는 인터뷰에서 혼종성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sup>19)</sup> 바바는 혼종성이 중요한 것은 제3의 것이 나타나는 두 개의 근원적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위치가 나타나게 해 주는 ‘제3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종적 문화 정체성을 가진 정일과 국적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제기를 하는 스키하리는 경계에 있는 것을 통해 사고한다. 자아와 타자처럼 이미 고정된 형태의 정체성과 문화형태가 아니라 ‘사이에 있는 것’, 주변부에 있는 것이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너무나 억압적인 문화의 뿌리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탈식민적 지식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삶을 꿈꾸며 스키하리와 정일은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그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sup>20)</sup> 자기 편과 아닌 편을 끊임없이 구분하

19) Bhabha, Homi K., and Jonathan Rutherford. “Third space”, *Multitudes* Vol.26, No.3, 2006, pp.95-107.

20) 그들은 일본 민족 고유의 정신이라는 아마토(大和: 민족 고유의 정신)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며 민족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마토의 손이란 말 그대로 혼이다. 혼이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흔들한다.”/ “다들 입

던 민족학교에서 스기하라는 일본 고등학교에 합격한 후 민족학교 다른 친구들에게는 ‘외부인’, 배신자인 ‘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정일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83)

화자는 “다양하다고 해봐야 주제는 늘 일정했지만”이라며 그들이 천착했던 관심사를 뒤이어 보여준다. 그들은 일본 민족 고유의 정신인 야마토에 문제제기를 하는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인종차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유전 결정론을 믿지 말라는 논조를 가진 스티븐 J. 굴드의 『인간의 오착 - 차별의 과학사』, 가이코 다케시의 〈유망기〉 등을 논의한다. 스기하라는 앎과 소설의 힘을 중시하는 정일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자신이 겪는 차별과 조선민족의 현실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다. 정일과 대화하며 스기하라는 민족학교가 교단같다며 민족학교를 비판하지만 정일은 민족학교가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민족학교라는 ‘교단’도 절대로 필요한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정일은 일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교단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이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며 주인공에게는 강한 인간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또한 김일성이 죽고 난 후 교단도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임’같은 것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89) 교조주의적인 학교와 북조선의 한계와 단점을 알고 있지만, 민족과 민족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울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일과 싸움대장이지만 의식이 있는 스기하라는 함께 공부하며 그들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

을 모아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다. 다들 들은 적은 있지만 아무도 만난 적은 없다. 야마토의 혼이란 상상의 괴물류인가.”(82쪽)

### 3-3. 앓의 문제와 마이너리티 연대

주인공 스키하라는 정일과 함께 스스로 앓의 주체로 서서 잘못된 앓을 수정하고 제대로 된 앓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한다. 주인공 스키하라는 그러한 앓을 다른 인종적 마이너리티인 재일 외국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주인공은 자신을 좁은 곳에다 구속시키려는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며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하고자 한다.<sup>21)</sup>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다른 마이너리티들과 나누며 앓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키하라와 정일은 어머니의 친구인 나옴씨가 운영하는 신주쿠의 불고기집에 가서 국적과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빼어난 미인인 나옴씨는 재일이지만 통명도 예명도 아닌 본명으로 '나옴'이라는 이름이라 민족학교 다닐 때 일본사람 같다고 종종 이지메를 당했고, 스키하라의 어머니가 나옴씨 편을 들어주어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설명된다. 그녀 또한 정일처럼 복잡한 국적, 민족의 배경을 가진 자이다.

스키하라는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남한에서 조국의 사람과 유교적 문화에 대해 실망한 이야기를 한다. 서울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혼자 탄 자신에게 재일교포냐고 물은 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김치는 먹을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자신의 발음을 문제시하고 민족주의적인 태도로 재일교포인 자신에게 부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 게다가 거스름돈마저 주지 않으려고 하자 폭발한 스키하라는 그를 폭행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상황도 잘 알지 못하는 호텔보이에게 스키하라가 돈을 갈취하려 택

21) 김영민, 「새로운 문화담론으로서의 초국가주의」, 『영어영문학 연구』 제51권 1호, 영어영문학회, 2009, 87-105쪽; 카와무라 미나토, 황봉모, 「재일한국인 문학의 새로운 흐름」,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2』,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3, 185-191쪽.

시운전사를 폭행했다는 잘못된 설명을 듣고는 스키하라가 토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다. 어머니도 스키하라의 따귀를 때리고 주변 사람들과 택시 운전사는 부모에게 박수를 치며 스키하라에게는 노골적인 악의를 보인다. “이곳은 유교의 나라였다. 나는 생각했다. 어른들은 다 싫다. 한국 같은 나라 망해버려라…….”(97) 재일교포가 한국인다운 점(racial marker)를 갖기를 기대하고 한국인답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는 택시운전사에 의해 주인공은 화가 났고, 단지 아버지의 조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거나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한국인의 편이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재일조선인의 민족주의적, 국수적 태도도 비판하지만 거스름을 주지 않으려고 한 택시운전사로 표상되는 썩은 자본주의의 남한, 민족주의적이고 유교적인 남한도 비판되고 있다.

스키하라의 아버지도 한국/조선인도 아닌, 일본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스키하라는 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로 자신을 한국의 ‘동포’로서 규정하려는 시도에도 결연한 반응을 보이며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한다. 많은 재일 교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상상 속의 고향’을 거부하는 스키하라는 고향을 북조선이나 한국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하다.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듯, 제주도 태생이자 국적은 조선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에게 고향은 분열된 것이었다. 분열된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을 찾지 못할 뿐더러 기원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키하라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적을 넘어 사람들과 탈민족주의적, 탈식민적 의식을 공유하는 장면은 매우 자세히 공들여 표현되었다. 뒤이어 스키하라와 정일, 나오미씨가 있는 다다미방에 다양한 국적의 종업원들이 와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다. 그들은 새로운 수확은 없나며 정일과 스키하라에게 배우고자

한다.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어색한 설정이지만 주인공과 등장인물들, 텍스트 모두가 이들의 얽힌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불고기집의 종업원들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국적만으로 표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국적은 다른 소수민족은 물론 일본인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뭐 새로운 수확은 없니?”

모두들 한결같이 젊었지만 인종은 다양했다.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그리고 일본인. 나는 미토콘드리아 DNA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일본인 여자애가 손을 들었다.(…)

재일한국인 남자가 물었다.(…)

중국인 여자가 내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독특한 징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 뿌리를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 미토콘드리아 DNA는 부모에게 자식한테 전해질 때 어머니 것밖에 전해지지 않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자기의 뿌리였던 오직 한 사람의 여자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재일조선인 남자가(…) 하고 말[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사용해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본슈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의 약 50 퍼센트가 한국과 중국 타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 일본 사람 고유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 5퍼센트에 불과했지.”

(...) 일본인 여자애가 물었다.(…)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일본인인 거잖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

다는 것뿐이야. 네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미국인이었을 텐데.”

그러나 부리는 국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정일이가 말했다.

“부리라는 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본인 여자가 다시 물었다. “우리 집 족보같은 거 없거든.”(…)

정일이가 말했다.

“귀찮으니까 도중은 다 생략하고 한 사람의 여자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여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국적도, 무슨무슨 인이라는 구별도 없었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그 자유로웠던 시대의 그냥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리가 조용해졌다. 모두들 각자 무언가를 반추하고 있었다.

(98-101)

길게 인용한 위의 텍스트에서 논의되는 것은 순수하게 국적으로 구분될 만한 어떤 근거도, 고정된 정체성을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따라서 국적을 근거로 차별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였고, 일본의 패전 후에도 여전히 잔존해있는 식민주의적 담론과 그 근거가 되는 인종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단순히 지배자의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지배자를 공격하거나 식민지배 담론 자체와 동일한 재현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고하고 다르게 재현하려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 관계로 이해되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롭게 보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사고방식과 연결고리를 끊는 탈식민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 스키하라는 국적같은 것이 아파트 임대 계약서나 다름 바 없는 거라고, 싫어지면 해약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한다. ‘개인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22조 2항에서처럼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국민”의 범주가 강조되고 일본론, 일본인론이 문화적 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속한 문화의 틀을 깨는 중요한 일탈이다.<sup>22)</sup>

재일조선인 남자가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알아봐야 차별하는 쪽이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라고 묻자 스키하라는 적개심보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대답한다.

“아니,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국적이라든가 민족을 근거로 차별하는 인간은 무지하고 나약하고 가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알고 강해져서 그 인간들을 용서해주면 되는 거야.(…)”(중략)

공부해두길 잘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102-103)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자가 강한 자라는 인식은 차별받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 위치를 전복하려는 반동적인 움직임의 방향과는 다르다. 또한, 그의 인식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제국주의 역사를 가진 문화와 그에 저항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인식하며 식당에서 집에 돌아온 스키하라는 운동도 하고, 씻은 후 기타연습도 한다. 체로키 인디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록 스타 지미 헨드릭스가 연주한 미국 국가를 듣는다.

지미 헨드릭스는 유독 최전선에만 골라서 동원된 마이너리티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기타로 미국 국가를 이렇게 연주했다.(기타 소리 묘사 생략)

---

22)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니시카와 나가오,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 문명, 국민국가』, 한경구·이목 역, 일조각, 2007. 참조

마이내리티의 목소리는 고위층까지 들리지 않을 테니, 어떤 수단을 써서든 목소리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내게도 언젠가 이 나라의 국가를 엄청난 소리로 연주하고 싶은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103-104)

일본의 국가를 엄청난 소리로 연주한다는 것은 마이내리티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의 틀은 인정하고 있다. 스키하라의 저항적인 지식을 쌓고 목소리를 내려면 실력도 키우며 성실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사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의도성이 다분히 느껴지는 스키하라의 하루의 일과 묘사지만, 작품의 톤이 과장적이고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식이라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않는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격투 시뮬레이션도 하고 잠이 쏟아졌지만 공부도 해놓는 스키하라. 그는 ‘단일민족신화’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열거하면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신화,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고발한다. 그는 “DNA니 하는 말이 없던 시대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오리지널리티에 넘치는 거짓말을 제멋대로 지껄여대며 다른 인종을 얼마나 많이 차별했는지를 배운다”고 서술한다. “단일민족신화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서적과 도서관에서 모아온 자료를 이것저것 훑어보았다”며 주요 개념어들을 나열한다.

단일, 차별, 동화, 배척, 혼혈, 이질, 균질, 잡종, 아마토 민족, 이민족, 혈통, 아이누족, 구마소, 류큐, 국체, 국수, 양이, 순결, 황국사관, 팔굉일우, 만세일계, 대동아공영권, 부국강병, 일시동인, 일선일체, 일선동조, 일한합병, 황민화, 신민, 총독부, 창씨개명, 영유, 제국, 식민, 통합, 침략, 정복, 괴뢰, 복종, 억압, 지배, 예속, 격절, 격리, 잡혼, 잡거, 혼합, 선주, 도래, 차이, 편견, 이동, 증식, 번식, 이인종, 열등인종, 우등인종, 혈족, 팽창, 영토, 통치, 착취, 약탈, 애국, 우생학, 동포, 계층, 이족, 융합, 화합, 야합, 배외, 배타, 배

제, 살육, 섬멸.(104-105)

위에 열거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끔찍한 역사를 반추해보면서 스키하라는 분개한다. 스키하라는 머리가 아프다며 일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공부하면 할수록 개인적으로 저항하거나 그 식민적 구조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키하라의 반응도 익살스럽게 묘사된다. 갑작스레 노르웨이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노르웨이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을 팔려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와 볼 정도로 우당탕거리며 방을 뒤흔다. 아버지와 대화는 의미심장한 내용이지만 역시 익살스럽게 서술된다. 아버지에게 노르웨이에 가서 “더러운 일본 말” 잊어버리고 노르웨이 사람 될 거라고, 이젠 넌더리가 난다고 하자 아버지도 예전에 일본이 싫고 스페인 여자가 예쁘다고 해서 스페인 사람이 되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노 소이 코레아노, 니 소이 하포네스. 조 소이 데사라이가도(No soy Coreano, ni soy Japanes, yo soy desarraigado).”

스키하라가 일본어를 “더러운 일본 말”이라고 하면서도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한다. 언어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자체라는 스키하라의 반박에 이론적으로는 그럴 지도 모르지만 인간은 이론으로는 다 해명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부연한다. 아버지는 아까 이야기한 스페인어의 뜻을 묻는 스키하라에게 스스로 찾아보라며 문장을 써놓고 나간다.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다. 나는 "dessaraigado"이다’에서 desarraigado(영어로는 uprooted)는 ‘식물을 뿌리째 뽑다’라는 뜻의

desarraigar에서 파생된 말로 “유대가 끊긴” 혹은 “인연을 끊은” 것을 의미한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조총련의 적극적인 활동 요원이었던(11) 그가 젊은 시절 일본을 떠나 스페인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하와이를 이유로 조선인의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 전부터 그는 국적으로 옮겨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했던 것이다.

스기하라에게 이 스페인어 문장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고 방을 나간 아버지는 비치 보이스의 “꿈의 하와이”를 노래한다. “Go to Hawaii/ Go to Hawaii/ Do you want to come along with me?”라고 큰소리로 부르는 아버지. 유토피아와 같은,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에 대한 희구가 “천국”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난다면 “하와이”는 휴양지의 아름다움이 있는 섬으로서뿐 아니라 재일“조선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갈 수 있는 곳, 마르크스주의자에게 타락한 자본주의의 상징(7)을 적대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말하자면 북조선과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조총련 공산주의자 요원의 신념,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갈 수 있던 곳이다. 일본 당국에 경품 교환소를 빼앗기는 경험을 한 후 하늘을 쳐다보며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구나..... 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일까.....”라며 “좋았어, 결정했다. 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처럼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 너도 오고 싶으면 와라!”(70)던 초등학교 6학년이던 스기하라에게 이야기하던 아버지.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나라”를 벗어나 “정말 좋은 나라”를 희구하는 아버지는 일본을 온전히 벗어나 스페인으로 가지도, 유토피아인 천국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하와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세상의 더 넓은 곳으로 주인공이 가도록 격려한다.

## 4. 인식주체로의 성장과 초국가적 주체의 추구

### 4-1. 초국가적 자기인식과 문화적 정체성

이처럼 다른 마이너리티와 앓을 공유하고 이는 것이 힘이라고 믿으며, 국가적 정체성에 의해 호명되는 것을 거부하는 스기하라라는 국적을 뛰어넘는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개인의 취향이라는 듯 사쿠라이와 그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며 탐닉한다. 처음 만난 날 취향을 이야기하며 밝힌 대로 그 둘은 모두 일본음악은 듣지 않는다.(52) 이들은 첫 데이트부터 미술관에서 하며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고 바로 CD가게에 가서 음악을 서로에게 권하며 음악가들을 논한다. 이후에도 귀는 날 만나서 ‘멋있는 것 발굴해내기’(128)를 한다. 영화, 음악, 미술, 책 등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 멋진 음악이나 책, 비디오를 발굴하러 다니기도 한다. 예술, 취향으로 자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학자 니시카와 나가오가 국민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틀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私)문화 개념을 연상시킨다.<sup>23)</sup> 문화는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문제이며 최종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기에 ‘나(私)’의 ‘선택’은 중요하다. 하나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버리고 다른 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자세가 상위문화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스투어트 홀이 『문화적 아이덴티티와 디아스포라』에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대해 논의할 때 그 개념을 국민성(nationality), 국민문화적 국경과 틀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상통한다. 스기하라와 사쿠라

23) 니시카와 나가오, 위의 책, 2007, 250-252쪽 참조.

이는 함께 국경의 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공감할만한 작품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간다.<sup>24)</sup> 그러나 후에 드러나는 것처럼, 사문화를 공유하며 친밀감과 취향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는 스키하라와 사쿠라는, 그들이 민족을 뛰어넘는 “탈식민적 선택”을 하기 전에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이 함께 감상하고 즐긴 여러 작품들이 논의되고 나열되는데, 스키하라는 특히 〈대부〉 시리즈에 감명한다. 그는 이 세계에서 이민(난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부〉 시리즈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사쿠라이에게 역설하며 이 영화 시리즈가 모든 이민(난민)족과 그 후예를 위한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낸다. 또한 브람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는 주인공에게 사쿠라이는 “몰라. 하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래서 브람스를 온 세계 사람들이 듣는 것 아닐까. 브람스의 음악은 아름다우니까.”라며 국적을 뛰어넘는 예술세계와 가치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쿠라이는 국적을 뛰어넘는 가치를 알고 있는, 교양과 의식, 주관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된다.

사쿠라이뿐 아니라 사쿠라이의 가족들도 국수주의적이거나 편협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스키하라는 사쿠라이의 집에 초대받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쿠라이의 아버지는 도쿄대학 출신에 과거 학생운동의 투사였고, 매우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다. 재즈를 좋아하고 음악과 영화를 즐기며, 흑인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인디언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부를 정도로 의식있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또한, 너무나 정치적인 일본을 싫어한다며 일본인이라고 해외에서 소

24) 스키하라는 정일과 함께 “마이너리티라도 어떤 흑인은 블루스나 재즈나 힙합이나 랩이니 하는 문화를 창조해냈는데, 어째서 ‘재일’은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지 못한 것일까”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나눈다고 한다.(142쪽)

개하기도 부끄러우며 선거에도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132-133) 그러면서 “스기하라 군은 이 나라를 좋아하나?”라고 묻는다. 스기하라는 처음으로 ‘일본인’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사쿠라이의 아버지와 일본과 일본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대화를 나눈다. 후에 논의되듯, 이렇게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며 딸이 “아주 친절하고 이해심도 있”다고 하는 사쿠라이의 아버지도 조선인과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심한 편견을 가지고 딸에게 인종주의적 교육을 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137)

사쿠라이와 데이트도 하고 함께 모의고사도 보며 여름을 지내다가 스기하라의 삶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정일의 죽음이다. 5장은 내성적이고 가냘픈 17살 일본인 남학생이 치마저고리 교복을 입고 있는 민족학교 여학생을 짝사랑하다가 친구들에게 들통나서 고백하려던 상황을 보여준다. 친구들은 든든하게 잭나이프를 지니고 있으라고 건네주고 “저런 조선 여자애한테 채이면 쫓따구 시킬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제일조선인이 입는 치마저고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본인 남학생의 시선에 당황하고 위협감을 느꼈다. “북조선의 테러 행위, 일본인 납치 의혹 등등의 모든 의심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는 그녀의 여린 어깨를 억누른다. 그녀는 전에 선 전후의 회사원에게 어깨를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 그 역의 흠에서.”(164)라고 작품은 설명한다. 조선인임을 드러내는 치마저고리 교복을 입고 있기에 타당한 이유 없이 바로 그 역에서 일본인 성인에게도 얻어맞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녀가 그 남학생의 눈빛을 오해하고 위협감을 느끼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지만 전철을 기다리는 주위의 승객들은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눈길을 돌릴 뿐이었다.(165) 그러한 여학생의 시선을 보고 구조의 요청임을 인식한 정일은 그 일본인 남학생의 등을 세계 밀었다. 일본인 남학생은 정일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리고 모두들 보고 있었기에 비참하고 부끄러워 무의식중에 잭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펴고 정일의 상반신에 칼을 댄 것이다. 정일은 그 나이프를 떨어뜨리려고 그에게 바짝 다가갔고 일본인 학생은 반사적으로 나이프를 밑에서 위로 휘둘렀고 정일은 목을 찢린다. 피를 흘리는 정일과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는 조선인 여학생을 뒤로 하고 사람들은 전철을 타고 사라지고, 이후에 역무원이 다가와 구급차를 불러준다. 정일은 과출혈로 죽고 일본학생 ‘그’도 같은 날 자살한다. 차별적인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해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양쪽 모두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

스기하라를 위로하기 위해 만난 사쿠라이는 그의 심상치 않은 슬픔을 감지하고 자신이 함께 있어주고 싶다고, 영원히 충실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한다. 스기하라는 사쿠라이를 만나서 한참 미토콘드리아 DNA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결국 인류가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쿠라이는 우울한 스기하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쪽 같이 있어준다고 제안하고 함께 호텔로 향한다. 사쿠라이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자신이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던 국적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느낀 스기하라는 사쿠라이에게 이야기해야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떼다. 사쿠라이는 국경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사쿠라이는 스기하라가 일본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인 재일한국인이라는 말에 매우 당황한다.

“아빠가 ..... 어렸을 때부터 줄곧 아빠가, 한국이나 중국 남자하고 사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어......”(…)

“옛날에, 아버지가 한국이나 중국 사람한테 몹쓸 짓을 당했다든가. 그런 이유로?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몹쓸 짓을 한 건 내가 아니야. 독일 사람 모두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야.”(…)

“..... 아버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했어.”(199-200)

스기하라의 아버지는 흑인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인디언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부르고 정치적인 일본을 싫어하며 일본의 정치 행태에 반대하는 행위로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고 이해심도 있는”(137)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런 그가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정도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피가 더럽다”고 여길 정도임이 아이러니하게 보여진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일본국민의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사고방식 기저에 있는 인종주의적, 식민주의적 전제들까지 바뀌는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의 한계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이나 중국인들을 가해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기제가 드러난다. 25) 스기하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적, 태어난 곳, 사용하는 언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결국 뿌리의 문제인데 뿌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며 항변한다. 결국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도 순수하게 일본인이라는 혈통은 없으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다양한 나라 사람의 피가 섞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혼종성을 이야기한다. 침묵하던 사쿠라이는 스기하라가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해도 정말 힘들고 웬지 겁이 난다고 한다. 스기하라는 “겁이 난다”고 하는 사쿠라이의 반응에 절망한다.

---

25) 작품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여러 번 이야기한다. “[난폭한 놈과 착한 놈의] 양자의 비율은 일본학교 역시 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차별’이라는 속이 짝 찬 연어가 주어진다. 그 차별 때문에 점점 더 난폭해져서 ‘그리하여 그 놈의 끔찍한 이미지가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조선인’의 표상으로 정착하고 만다.”(28쪽)

## 4-2. 전략적 글쓰기 방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소설에는 경찰관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언급된다. 사쿠라이에게 거절을 당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경찰을 만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도록 설정한 것과 그를 묘사하는 방식에서는 가네시로 가즈키 특유의 위트가 느껴진다. 사쿠라이를 떠나 호텔을 나와 한참을 걸어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주인공에게 늘 불편한 존재였던 경찰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가네시로 가즈키 특유의 유머가 보인다. 우선 경찰을 처음 묘사하는 방식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의 엄격함을 과장해서 표현한다. 이후에 이 경찰은 유약하고 소심한 인물로 드러나기에 반전의 묘미가 있다.

“이봐, 너. 이런 시간에 뭐하고 있는거야?”

젊은 경찰은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물었다. 얼굴에는 짙은 의심의 빛과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동물의 잔인함이 떠나니고 있었다.(…)

내게서 중학교 시절의 잔향을 맡았는지 예의 단골 질문으로 진행했다.

“집은 어디지?”

젊은 경찰이 험악한 얼굴로 물었다.(…)

“왜? 왜 대답을 못해?”

젊은 경찰이 불쾌한 말투로 대답을 재촉했다.(207-209, 필자 강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죄’를 지었기에 스기하라라는 경찰을 한 대 치고 도망가기로 한다.<sup>26)</sup> 스기하라가 경찰을 치자 젊은 경찰

---

26) 김용교, 위의 논문, 133-136쪽. 1945년 해방 이후 약 60만여 명이 제주도 4·3사건 등 정치적 문제와 귀환자의 재산 지참 제한 등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 정부는 1947년 외국인 등록령을 선포하면서 재일한인에 대해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

은 쓰러지고 큰 대자로 뺨이 꼬박도 못한다. 걱정이 되어 돌아가보니 정신을 잃고 있어서 스기하라는 경찰이 깰 때까지 기다린다. 경찰이 깨고 스기하라는 그와 같이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찰 캐릭터도 재미있지만 스기하라가 내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로 풋내기 젊은 경찰이라는 점도 의미 있다. 등장했을 때 엄격하게 묘사했던 경찰관은 쓰러져 넘어져 정신을 잃는 장면부터 희화화되어 묘사된다. 깨어나는 장면 또한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 “담배를 한 대 다 피우고 나자 젊은 경찰이 눈을 떴다. 잠시 누운 채로 눈알을 데굴데굴 굴리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몇 번인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미소를 던졌다.”(211) 이후에 담배를 달라고 하고서는 처음 하는 말이 “나, 영 적성에 안 맞아, 이 직업.”이다.(211) 자신이 체육대 출신인데 취직자리가 없어서 경찰이 된 거라면서 자신의 신세한탄을 한참이나 한다. 스기하라도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젊은 경찰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스기하라는 이제껏 차별을 당하면서도 “차별을 하는 놈은 대체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놈이니까” 태연할 수 있었고 한 대 쳐주면 그만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사쿠라이를 만나면서부터는 차별이 두려워졌다고 한다. 정말 소중한 여길 만한 일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었고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 여자아이였기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가 싫다고 할까봐 내심 걱정이 되어 말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차별같은 것 할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그녀를 믿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말하기 쉽지

---

을 밝힌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외국인 등록령을 외국인 등록법으로 변경하여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한다. 한편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은 ‘자이니치’는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1965년 한일관계정상화를 맺으면서 일본은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을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여 한국국적을 선택한 한인들에게 협정 영주권을 부여하였다. 자이니치들은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한 이후 특례영주자의 지위를 겨우 받게 된다.

않은 깊은 속마음을 처음 만난 일본인 경찰에게 털어놓게 하는 설정, 그 경찰의 캐릭터를 통해 억압적 경찰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깰 뿐 아니라 일본의 공권력의 문제점과 개개인을 분리해서 파악한다는 점이 보인다. 스기하라와 경찰관과의 만남은 엄숙하고 진지하지 않으며 경찰의 스테레오타입을 비틀어서 코믹하고 인간미 넘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식민지배 담론을 바꾸어 역으로 공격하는 식의 대항적 글쓰기가 아니라 위트와 유머를 가지고 전유하여 새로운 재현방식으로 보여준다.

6장에서는 주인공에게 중요했던 인물들과의 관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다. 가토는 클럽에서 스기하라가 코바야시를 무찌르고 나간 즈음부터 학교에서 안 보이다가 스기하라에게 연락한다. 불법 거래를 하다가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보호관찰형을 받은 가토는 “너[스기하라]처럼 내 자신의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너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때까지” 안 만나겠다며 야쿠자의 아들이란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너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겠다고 한다. 또한 자신도 상당히 힘들다며, 일본사람이라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작품 곳곳에 나오는 주인공의 나르시시즘은 거슬리기도 하지만 일본인이 재일한국인에게 현실적으로 할 법하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인도 일본인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을 받으며 억압자인 일본인 안에 균열이 있다고 읽을 수 있다.<sup>27)</sup> 일본 내에서도 차별받는 계층이 있으며 이들과도 연계할 수 있음이 나오미 씨의 불고기집에서 자기 집에는 족보가 없었던 일본인 여자아이와 가토의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 족보가 없는 여자아이, 아빠가 조폭이라 차별받는 가토의 반응은 세련되고 잘 배운 사쿠

27) 서경식은 일본사회에서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살던 부라쿠 옆에 조선인 부라쿠가 형성되었던 과거 역사를 기술하며 일본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별을 설명한다. 서경식, 『언어의 감옥에서』, 권혁태 역, 돌베개, 2011, 207-208쪽.

라이의 아버지와 대비된다.

일본인 학교에서 가토까지 없어져 얘기할 상대도 없는 스키하라에게 또 도전자가 오고 스키하라는 25전 무패의 사나이가 된다. “그건 그렇지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224)라며 주인공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일본사회이지만 몸싸움으로만 맞설 것이 아니기에 입시공부에 열중한다. 그러던 중 미야모토라는 재일이 찾아온다. 그는 북조선이나 한국, 조총련이나 민단 구분없이 재일 젊은이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참하는 게 어떻겠냐며 권유한다. 재일의 권리를 위해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자는 모임에 스키하라가 쉬이 동참을 결정하지 않자 그는 나중에 대답을 들려달라고 한다.

미야모토의 말을 생각하며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술값을 못 내어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 아버지는 교환소가 또 없어지게 될 것이고 북조선에 있는 동생 동길이가 죽었다며 슬퍼한다. 동생이 죽어도 북조선에 갈 수 없는 현실에 스키하라는 분노하며 북조선 놈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 위로가 필요했던 아버지에게 당신네 1세, 2세가 그렇게 공상을 떠니 자신들 세대가 아직도 때를 못 벗는 거라며 당신네들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공상맞은 시대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다.<sup>28)</sup> 스키하라는 택시에서 내려서 아버지와 싸운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전직 프로 권투선수답게 스키하라를 때려 눕힌다. 우스꽝스럽게 앞니가 부러진 아들과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스키하라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나라도 점차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하겠지. 재일이니 일본인이니 하는 것, 앞으로는 없어질 거야, 장담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대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해. 그렇

28) 서경식은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 땅처럼 재일교포 사회도 분열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굴곡이 있었음을 논의한다. 서경식, 앞의 책, 200쪽.

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게 변할까 하는 스기하라의 질문에, 아버지는 근거라도 있는 듯한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 그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243)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경품 교환소를 다 빼앗기고 한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한다. 서술자 스기하라는 아버지가 스기하라를 “웁아매고 있는 족쇄를 하나라도 풀어주려” 하와이 여행을 핑계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 망할 영감탱이의 노고를 치하해 줄 인간은 그러나 이 나라엔 존재하지 않”기에 스기하라는 과장된 말을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국경을 없애버리겠”다는 스기하라의 말에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뜬 후 미소를 띠고 자신의 가문이 유서 깊은 허풍쟁이 가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버지와 공감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주인공과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아버지와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만, 아버지는 스기하라에게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스기하라는 아버지와 싸움 이후 미야모토가 찾아오자 그가 하는 일이 “의미있는 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누구하고도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다.<sup>29)</sup> 스기하라는 소수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족적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찬성하지 않으며 보다

29) Bhabha, Homi K., “On minorities: cultural rights”, *Radical Philosophy* 100, Mar/Apr 2000, pp.3-6.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자신의 개별적 자율성을 집단적 또는 개별적 존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인간 행위의 가치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 없이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바바는 이주민의 관점들에 인권을 찾는 과정에 대한 지혜가 있음을 강조하며 소수민 문화에는 “정치적 주체 만들기과 문화적 정체성 찾기라는 자기 형성 과정 속에 불안전하고 과정적인 것이 내재해있다는 깊은 통찰”이 있다고 기술한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작품에서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혹은 다른 형태로 국가와 민족 사이에 있는 소수자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김 베이싱어가 국적 바꿔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변경 신청을 할 거라고. 자신에게 국적이란 그런 거라고 말하는 스기하라를 미야모토도 받아들이고 둘은 악수를 나눈다. 가토와 같은 인물은 그들의 정체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스기하라는 이러한 일본인들을 물리칠 만큼 강력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일본인들을 나약한 존재로 보고 용서한다. 이로써 스기하라는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며 일본인들의 불안과 나약함을 드러낸다.

#### 4-3. 초국가적 주체의 추구

결말인 7장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며 마무리된다. 12월이 되고 스기하라는 착실하게 입시 공부를 계속했다. 일본인인 정일이 엄마는 정일의 유골을 화장하여 여러 나라에 뿌리기로 했다며 조만간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보려고 한다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정일이를 오래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불고기집의 사장 나오미씨는 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12월 23일 저녁, 스기하라는 원수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다. 민족학교 시절 친했던 원수와 스기하라는 스기하라가 민족학교를 떠난 뒤로 소원한 사이가 되었지만 둘만의 방식으로 화해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다. 원수는 스기하라에게 담력 테스트 때 멋있었다며 “이제 가(行けよ)”라고 한다. 스기하라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이다. 어색한 대화 끝에 스기하라는 영똥한 짓 하다가 죽지나 말라고 하고 원수는 자신이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는다며 헤어진다.

마지막 장면은 사쿠라이와의 재회 장면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쿠라

이에게서 전화가 오고 둘은 초등학교에서 만난다.<sup>30)</sup> 사쿠라이는 그간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스키하라의 돌연 묻는다. “난 누구지?”하고 묻는 스키하라의 질문에 사쿠라이는 “재일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스키하라의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자란 자신에게 왜 재일이라고 하냐고,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날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말이라며 따진다.

나는 재일도 한국인도 몽골로이드도 아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좁은 곳에다 쳐박지 마. 나는 나야. 아니, 난 내가 나라는 것이 싫어. 나는 내가 나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나는 내가 나라는 것을 잊게 해주는 것을 찾아서 어디든 갈 거야. 이 나라에 그런 게 없으면, 너희들이 바라는 바대로 이 나라를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너희들은 국가니 토지니 직함이니 인습이니 전통이니 문화니, 그런 것들에 평생을 얽매어 살다가 죽는 거야. 제길.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것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가.(……)(261)

디아스포라로서 국가, 전통, 문화에 얽매어 있지 않기에 차별도 서러움도 당하는 것이지만 역으로 얽매어있는 것이 없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쿠라이는 스키하라의 얼굴을 감싸며 스키하라의 눈을 바라본다. 이제 스키하라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 안 한다며 눈물을 닦아준다. 스키하라에게 “어서 어디로든 가자(行きましょう)” “어디로 가지?(どこに行く?)”하고 묻는 스키하라에게 사쿠라이는 어디든 좋다며,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어디서 잘지 생각해보자고 한다. 그녀는 앞서 걸어가

30) 국민교육의 대표적인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스키하라와 사쿠라이의 첫 데이트와 작품 마지막의 만남이 이뤄지는 데 반해, 영화에서는 국회의사당 등 소설에 없는 공간이 데이트 장소로 설정되고 의미도 다르게 부여된다.

며 스기하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끝맺는다. “가자.(行きましょう)”(268)<sup>31)</sup>

작품에서 “가”라고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그려진다. 우선, 민족학교의 수세미 선배는 중학교 때 폭주족과 싸움에서 “가(行け)”라고 말했고, 중학교 2학년 봄방학에 마지막 만나고 사라지기 전, 스기하라에게 “가(行け)”라고 했다.(78)

원수가 스기하라에게 “가(行けよ)”라고 하며, 사쿠라이가 스기하라를 다시 만나서 그 전 해 9월, 스기하라가 농구부원들을 상대로 싸울 때, 코치가 “가!(行けつ) 스기하라를 붙잡아!”하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263) 마지막 장면에서 스기하라에게 어서 어디로든 “가자(行きましょう)”고 하며 마지막 문장도 “가자(行きましょう)”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코스모폴리탄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하듯, 이 작품의 방향성은 “가”는 것이라는 점이 의미있다.<sup>32)</sup> 스기하라에게 ‘가자’고 촉구하는 아버지와 수세미선배. 스기하라를 가서 잡아 오라는 일본인 코치, 그리고 함께 가자고 하는 사쿠라이. 이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중첩된 곳에 소설 <GO>는 위치하고 있다.

---

31) “가자(行きましょう)”고 하는 마지막 장면과 관련해 소니 랑은 “타이틀이 GO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그것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며 “재일 젊은 세대의 불확실한 삶의 방향을 지적한 것”일 것이라고 한다. 물론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곳은 없겠지만, 스기하라는 자유롭고자 한다.

32) 가라타니 고진, 『윤리21』, 송태욱 역, 사회평론, 2001, 85쪽.

## 5. 결론

본 논문에서 다룬 <GO>에는 탈식민주의에서 논의하는 바가 잘 드러나 있다. 작품에는 “선택”과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 편견에 대한 “앎”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하는 선택과 앎은 탈식민주의에서 논의하는 탈식민적 선택과 탈식민적 지식의 좋은 예가 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지닌 것에서는 스스로 관계를 끊되,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이해,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민족적, 혈연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트랜스내셔널한 주변 인물들로 나타나고, 이들과 함께 그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들이 어렵פות하게나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는 재일한인의 삶에서 민족, 조국의 문제, 국가적 정체성이 탈식민적 선택을 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동체, 이들이 가진 보편적 이상과 민족, 국가의 개념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한국계로서의 자의식과 이들의 비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했다. 고정된 국가 개념으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성숙하면서 다른 민족, 국적의 사람들과 연대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이 가진 공동체적 비전이 동시대의 일본 내에서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비전을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인 한국인 사회의 공동체 개념이 매우 배타적이고, 좁고 한정적임을 드러내며 그 틀을 넘는 비전을 제시한다.

국민국가의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중으로 ‘타자성’을 지닌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이중적 정체성은 분열적 정체성으로, 유동적인 정체성으로, 사이(inbetweenness)의 정체성으로도 해석되어 왔다.<sup>33)</sup> 이러한 이중의식은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경계인인 디아스포라 개인이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며 각자의 운명의 주체로 설 때, 디아스포라의 이중성과 혼종성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개체들의 움직임이 연대될 때, 해방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재외한인의 경우,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따라서 권력구조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이나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를 보인다. 디아스포라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양가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국가, 문화 별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가진 기의가 계속 변화하고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속한 나라에서 한국이 위치하는 위상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실제 소속국과 소수자인 디아스포라가 자신/조상의 본국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작품들에서 한국과 거주국 각각의 단어가 표상하는 바의 유동적 의미, 국가 정체성의 기표들의 불안정성, ‘모국’이라는 개념의 애매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들의 작품을 살펴볼 때 재외한인들을 또다시 국가주의적이거나 민족적인 언어로 규정지으려는 것이 이들의 삶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주를 경험한 이민 1세대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주

---

33) Tölölyan, Khachig, "The nation-state and its others: in lieu of a preface.",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Vol. 1, No. 1, 1991, pp.3-7. 디아스포라 연구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자인 톨렐리안은 디아스포라를 민족국가의 내적, 외적 "타자"로 재현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특징적인 위치라고 파악한다.

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민 2세대들의 작품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한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갖는 의식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GO>에서는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해가는 정체성의 일부로서 선택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주인공이 한국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새롭게 관계 맺어가는 방식은 특유의 유머와 대중적 서사방식을 통해 유쾌하게 그려지며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가네시로 가즈키(金城一紀), 『GO』, 김난주 역, 북폴리오, 2006(개정판).  
프란츠 파농(Franz Fanon),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문학동네, 2014.  
金城一紀, 『GO』, 株式会社講談社, 2000.

### 2. 논문과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윤리21』, 송태욱 역, 사회평론, 2001.  
강승목, 「기억의 터에 구성된 디아스포라 기억의 내러티브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0권 4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4, 7-23쪽.  
권성우, 「고뇌와 지성- 최근 서경식의 사유와 글쓰기에 대해」, 『세계한국어문학』 제4권, 2010, 세계한국어문학회, 53-74쪽.  
김광수·박정아,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의 방향과 그 주체」, 『한일어문논집』 제14집, 한일일어일문학회, 2010, 131-144쪽.  
김응교, 「이방인, 자이니치 디아스포라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133-136쪽.  
김종희,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문학과지성사, 2015.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1』, 국학자료원, 2003.  
\_\_\_\_\_,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김현택 공저, 『재외한인작가연구』,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1.  
김형규, 『민족의 기억과 재외동포소설』, 박문사, 2009.  
김환기 편, 『재일디아스포라문학』, 새미, 2006.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 윤대석 역, 소명출판, 2002.  
\_\_\_\_\_, 『국경을 넘는 방법: 문화, 문명, 국민국가』, 한경구·이목 역, 일조각, 2007.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장수현·김우영 역, 이산, 2005.  
문재원,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사의 경계와 해체- 현월과 가네시로 가즈키의 작품

- 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5-21쪽.
- 박치완, 「코드화된 문화적 주체들의 타자와의 공감 문제: 가네시로 가즈키의 『GO』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제36집, 한국해석학회, 2015, 123-158쪽.
- 미놀로, 월터 D.,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전 지구적 미래들과 탈식민적 선택들』, 김영주 외 2명 역, 현암사, 2018.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희숙 역, 나남출판, 2003.
-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새로운 민족관을 찾아서』, 이규수·임성모 역, 돌베개, 2006.
- \_\_\_\_\_, 『고통과 기억의 연대는 가능한가』, 철수와영희, 2009.
- \_\_\_\_\_, 『고뇌의 원근법』, 박소현 역, 돌베개, 2009.
- \_\_\_\_\_, 『언어의 감옥에서』, 권혁태 역, 돌베개, 2011.
- 신기영,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일본비평』 제14집, 일본연구소, 2016, 22-49쪽.
- 심지원, 「역사만화 〈맨발의 겐〉에 드러난 원폭 피해자의 내러티브와 성장의 플롯」, 『인문콘텐츠』 제4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6, 123-152쪽.
- 앤더슨, 베네딕트, 「원거리 민족주의」, 『민족연구』 제4권, 한국민족연구원 역, 한국민족연구원, 2000년, 117-125쪽.
- 윤상인, 「재일한국인 문학과 「이름」의 정치학」, 『일어일문학연구』 제59권 2호, 일어일문학회, 2006, 139-154쪽.
- 이영미, 「가네시로 가즈키의 『GO』에 나타난 '국적(國籍)'의 역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37집, 한국현대소설연구회, 2008, 325-347쪽.
- \_\_\_\_\_, 『한인문화와 트랜스네이션』, 한국문화사, 2009.
- 최수용, 「재일한민족문학의 이야기가치와 문화콘텐츠적 활용양상 연구- 가네시로 가즈키의 소설 『GO』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8권 2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281-306쪽.
- 카와무라 미나토, 황봉모, 「재일한국인 문학의 새로운 흐름」, 『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2』,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3, 185-191쪽.
-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노서경 역, 문학동네, 2014.
-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2.

- Bhabha, Homi K., "On minorities: cultural rights", *Radical Philosophy* 100, Mar/Apr 2000, pp.3-6.
- Bhabha, Homi K., and Jonathan Rutherford. "Third space", *Multitudes* Vol.26, No.3, 2006, pp.95-107.
- Cohen, Robin, and Steven Vertovec, eds. *Migration, Diasporas, and Transnationalism*, Edward Elgar, 1999.
- Cohen, Robi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Routledge, 2008.
- Gearhart, Suzanne, and David Palumbo-Liu, *Minor Transnation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230-233.
- Khan, Nyla Ali, *The Fiction of Nationality in an Era of Transnationalism*, Routledge, 2013.
- Mignolo, Walter D., "Delinking: The rhetoric of modernity, the logic of coloniality and the grammar of de-coloniality", *Cultural studies* 21.2-3, 2007, pp.449-514.
- \_\_\_\_\_, "Epistemic disobedience and the decolonial option: A manifesto.", *Transmodernity* 1.2, 2011, pp.3-23.
- \_\_\_\_\_, "Geopolitics of sensing and knowing: On(de) coloniality, border thinking, and epistemic disobedience.", *Confero: Essays on Education, Philosophy and Politics* 1.1, 2013, pp.129-150.
- Palumbo-Liu, David, *Asian/American: Historical Crossings of a Racial Fronti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Radhakrishnan, R., "Ethnicity in an Age of Diaspora" *Theorizing Diaspora*. Eds. Jana Evans Braxiel and Anita Manner, Blackwell, 2003. pp.119-131.
- Tölölyan, Khachig, "The nation-state and its others: in lieu of a preface.",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Vol. 1, No. 1, 1991, pp.3-7.

## Abstract

### A Decolonial Reading of Kaneshiro Kazuki's <GO>

Shim, Ji-Won(Dankook University)

Kaneshiro Kazuki's novel *GO* presents an original narrative and a decolonial consciousness that transcends the ethnic discrimina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often repeated in the literature of Zainichi Kore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tagonist's process of growing into a transnational subject, breaking free from the oppressive structures of nation and ethnicity, along with the narrative techniques used.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discuss decolonial ways of thinking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ersonal identity.

This paper first explores how the protagonist, through "de-linking," breaks free from traditional ethnic and national oppression and grows into an autonomous, reflective subject. It examines the protagonist's intellectual journey as they grapple with national identity, study the reasons behind prejudice and its historical context, and share knowledge with various minority groups to create a discourse of resistance. By doing so, the study analyzes how the protagonist comes to live a self-determined life, unbound by the constraints of the state. Throughout this process, the protagonist forms a new identity through solidarity with different minority groups, ultimately choosing a more autonomous path.

The novel addressed in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opular film adaptation of *GO*, emphasizing themes of "choice" and "knowledge" concerning one's own history, society, and prejudice. The process of making choices and acquiring knowledge in the search for ethnic identity aligns with decolonial choices and knowledge discussed in decolonial theory.

This study highlights how *GO*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Zainichi Korean

literature, presenting a new narrative form based on decolonial thought, and evaluates its significance. The novel stands as an example of transcending ethnic narratives traditionally explored in Zainichi Korean literature, achieving broader appeal within Japanese society.

(Keywords: Zainichi Koreans, diaspora, decoloniality, decolonial choice, de-linking, Kazuki Kaneshiro, GO)

논문투고일 : 2024년 9월 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